

방연(方椽)이 표현된 승탑의 용례와 특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 and Features of Bangyeon on the Seungtap

조 현 정*

Cho, Hyun-Jung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문화재학과 객원교수, 문화재박사)

김 왕 직

Kim, Wang-Jik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정교수, 공학박사)

Abstract

Rafter is a member for roof and plays a role in protecting shaft members under rafter such as pillar, beam and girder from natural environment and to fix by supporting finished materials of roof. It is common in the Korean architecture that rafter cross-section is paired with circular form and Buyeon cross-section is paired with the square shape. However, while there are not many, some architectures have rafter end header in the square shap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quare shape cases of rafter end header with special reference to stone structure.

As a result, among stone structure related to Bangyeon, the majority case is seen at Palgakwondang type Seungtap. It was shown in the Seungtap of monk of Gusanseonmun school in the later Unified Silla to the early Goryeo period that succeeded Seodang Jijang.

주제어 : 방연, 각 서까래, 승탑, 부도, 구산선문, 서당지장

Keywords : Bangyeon, Square shape cases of rafter, Seungtap, Stupa of Buddhist Monk, Gusanseonmun, Seodang Jijang

1. 서 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서까래는 지붕을 구성하는 부재로 서까래 하부의 기둥과 보, 도리 등 축 부재를 자연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붕 마감재를 받아 고정하는 기능이 있다. 한국건축에서 서까래 단면은 원형, 부연 단면은 방형으로 한 쌍을 이루는 것이 보편적인 유형이다. 따라서 원형 서까래가 한국건축의 특징 중 하나로 흔히 설명되어 왔다. 이웃 나라 중국이나 일본의 건축은 한국에 비해 서까래 마구리가 방형인 것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건축 이해를 돕기 위한 이러한 비교설명이 때로는 일반화의 오류로 귀결되기도 하는데, ‘한국건축의 서

까래는 대부분 원형이다’라는 명제가 ‘원형 서까래가 아닌 것은 한국건축이 아니다’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축에도 서까래 마구리가 방형인 것, 즉 방연(方椽)이 엄연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기록 중에는 『창덕궁수리도감의궤(昌德宮修理都監儀軌, 1647)』의 인경궁 관련 기록이 방연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이며, 이외 40여 건의 의궤에서 방연과 관련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실물은 1628년 상주 양진당이 가장 오래된 사례이며, 주로 창덕궁의 정자와 문 및 행각 등 왕실 관련 부속 건물에서도 다수의 방연 설치 사례를 볼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17세기 이전의 방연 사례를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방연이 표현된 팔각원당형 승탑은 신라 말 고려 초 무렵의 목조건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¹⁾

* Corresponding Author : rara365@naver.com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도시건축연구사업(한국기술개발) 연구비지원(14AUDP-B070934-02)에 의해 수행되었음.

1) 엄기표,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2003, 18~19쪽;

8 논문

이와 같이 석조물을 비롯하여 목조건축, 의궤 등에서 서까래가 방형인 사례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석조물 중에서도 승탑에 초점을 두고 정리하고자 한다.²⁾ 방형의 서까래를 볼 수 있는 승탑의 용례(用例)들을 종합하고, 구산선문의 사자상승(師資相承)과 관련하여 문도의 승탑 중 방연을 통한 조형적 친연성에 관한 검토와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을 통해 서까래 마구리가 방형인 것도 한국건축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는 건축사(建築史) 연구의 유연한 관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향후 한국건축 설계 및 시공 분야의 새로운 응용과 시도에도 보다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서까래가 방형인 것을 이하 본문에서는 방연으로 표기한다.

1-2. 연구 방법과 범위

승탑 중 방연의 용례 조사는 현지 조사와 함께 관련 보고서와 기존 연구 등을 참고하고, 이와 관련된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연구 대상은 팔각원당형 승탑이다. 처마 부분이 상세하게 표현된 팔각원당형 승탑 중에서도 방연이 표현된 국가지정문화재는 현재 10건이다. 이 10건의 승탑이 주요 연구 대상이다. 조성 연대는 모두 통일신라부터 고려 초까지의 승탑들이다.

2. 방연이 표현된 팔각원당형 승탑

탑과 승탑 등 석조물 중에는 목조건축의 세부 양식까지 표현되어 있는 사례가 많다. 방연을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국내 유적이 승려의 묘탑인 승탑이다. 승탑은 삼국시대 말기부터 시작되었으나, 승탑 중에서도 통일신라

석조부도는 열반한 스님의 제자들과 단월(檀越)들에게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최고의 정성이 들어가게 마련이며, 당대의 예술적 역량이 응집되어 있다. 다른 석조물에 비해 건축적 요소와 공예적 측면들이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건축을 유추할 수 있다.

2) 기존 연구에서 방연(方椽)에 대해 정리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목조건축에 관한 것은 2010년 발간된 영건의궤연구회의 『영건의궤: 의궤에 기록된 조선시대 건축』에서 방연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석조물 중 팔각원당형 승탑에 나타나는 서까래를 모각(模刻)한 사례에 대해서는 1999년 천득엽·박지민의 「石造遺構를 통한 韓國 古代建築에 관한 연구: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를 중심으로」(건축역사연구, 8권, 3호)와, 2003년 김버들의 「韓國八角願堂石造浮屠와 日本八角願堂型建築物의 聯關性에 관한 研究」(『大學院研究論集』, 33집, 東國大學校 大學院)에서 일부를 볼 수 있다.

특히 신라 말 고려 초의 승탑과 관련된 연구는 미술사 분야에서 진전되어 있다. 엄기표의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학연문화사, 2003)와 「新羅末 高麗初 石造浮屠에 반영된 木造建築 要素 연구」(文化史學, 31호, 2009)이 대표적이다. 그 외 관련 연구로 소재구의 「新羅下代와 高麗時代 僧塔 研究」(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02)와 박경식의 『통일신라 석조미술 연구』(학연문화사, 1994)가 있다.

부터 고려 초까지 조성된 팔각원당형 양식에서 방연을 모각한 것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다. 총 10건의 승탑에서 방연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라도 지역에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경상도에 집중해 있다.<표 1>

표 1. 방연이 표현된 팔각원당형 승탑

No.	조성 연대	명 칭	지역	지정
1	통일신라	전 흥법사 엄거화상탑 (傳 興法寺 廉居和尚塔)	강원 원성	국보 104
2	861	대안사 적인선사조륜청정탑 (大安寺 寂忍禪師照輪淸淨塔)	전남 곡성	보물 273
3	883	봉암사 지증대사탑 (鳳巖寺 智證大師塔)	경북 문경	보물 137
4	9C	실상사 증각대사응료탑 (實相寺 證覺大師凝蓼塔)	전북 남원	보물 38
5	9C	실상사 수철화상능가보월탑 (實相寺 秀澈和尚楞伽寶月塔)	전북 남원	보물 33
6	통일신라	연곡사 동승탑 (鰲谷寺 東僧塔)	전남 구례	국보 53
7	10C 초	석남사 승탑 (石南寺 僧塔)	울산 울주	보물 369
8	고려	연곡사 북승탑 (鰲谷寺 北僧塔)	전남 구례	국보 54
9	고려	대안사 광자대사탑 (大安寺 廣慈大師塔)	전남 곡성	보물 274
10	고려	보원사 범인국사보승탑 (普願寺 法印國師寶乘塔)	충남 서산	보물 105

이들 중 보원사 범인국사승탑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일신라 말 고려 초 당의 영향을 받은 남선종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팔각원당형 승탑들이다. 구산선문은 회양산문(曦陽山門), 사굴산문(闇崛山門), 사자산문(師子山門), 성주산문(聖住山門), 실상산문(實相山門), 봉림산문(鳳林山門), 가지산문(迦智山門), 동리산문(桐裏山門)으로 나뉘는데, 방연이 나타나는 승탑은 그중에서도 동리산문, 실상산문, 가지산문, 회양산문의 승탑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2-1. 실상산문의 승탑

실상산문의 승탑 중에서 실상사 증각대사응료탑과 실상사 수철화상능가보월탑에서 방연이 모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승탑 모두 처마는 홀처마이며, 양식적으로도 유사한 부분이 많은 승탑이다.

실상사 증각대사응료탑 증각대사 홍척(洪陟)의 묘탑으로 홍척의 생몰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828년 실상사를 개창하였으므로 9세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³⁾ 홍척은 당의 구산선문 계보 승려 중 서당(西堂) 지장(智

藏)의 제자이다. 서당지장의 스승은 마조(馬祖) 도일(道一)이다. 홍척은 귀국 후 실상산문의 개산조가 되었다. 홍척의 제자이자 실상산문의 2조인 수철(秀澈, 817~893)의 묘탑은 실상사 수철화상능가보월탑이다. 승탑과 탑비가 전해져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표 2. 방연이 표현된 실상산문 승탑

구분	승려	활동 및 관련 사찰	해당 승탑
개산조	홍척	- 실상사 개창 - 지장의 제자 - 당 유학 - 문경봉암사 지증대사탑 비문에 홍척 기록 있음	실상사 증각대사 응료탑
2조	수철	- 홍척의 제자 - 심원사(深遠寺)에 머무름 - 실상사에서 제자 양성	실상사 수철화상 능가보월탑



그림 1. 실상사 증각대사탑 (촬영: 조현정)



그림 2. 실상사 수철화상탑 (촬영: 조현정)



그림 3. 실상사 수철화상탑 방연 (촬영: 조현정)



그림 4. 실상사 증각대사탑 방연 (촬영: 조현정)

2-2. 동리산문의 승탑

동리산문의 승탑으로는 전남 곡성의 대안사 적인선사 조륜칭정탑과 광자대사탑, 전남 구례의 연곡사 동승탑, 연곡사 북승탑이 있다. 외형으로만 보아도 이 4기의 승탑은 양식적 연계성이 뚜렷이 보이며, 앞서 살펴본 가지

산문과 실상산문의 승탑들과 달리 모두 겹쳐마이다. 방연과 부연을 모두 볼 수 있다.⁴⁾

대안사 적인선사조륜칭정탑은 861년에 조성된 것으로, 적인선사 혜철(惠哲, 785~861)은 당에 유학을 다녀왔으며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동리산문의 개산조이자 당 서당지장의 제자이다.⁵⁾ 대안사 적인선사조륜칭정탑과 거의 동일한 양식이 광자대사 윤다(允多, 864~945)의 묘탑인 대안사 광자대사탑이다.

윤다는 동리산문의 3조이며, 승탑은 스승인 고려 초 적인선사조륜칭정탑의 양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입적 시기인 945년에 맞춰 건립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3. 방연이 표현된 동리산문 승탑

구분	승려	활동 및 관련 사찰	해당 승탑
개산조	혜철	- 당 유학 - 지장의 제자 - 서주 부사사에서 대장경 열람 - 태안사(太安寺 = 대안사)에서 설법	대안사 적인선 사조륜칭정탑
2조	도선	- 화엄사에서 승려가 됨 - 혜철의 제자 - 전남 옥룡사(玉龍寺)에서 후학 양성	연곡사 동승탑
3조	윤다	- 여선사(如禪師)의 제자 - 가야갑사(迦耶岬寺)에서 구족계(具足戒) 받음 - 흥왕사(興王寺) 황주원(黃州院)에 머물	대안사 광자대 사탑
4조	현각	- 인도 유학 - 인도 대각사(大覺寺)에서 머물 - 타지에서 입적	연곡사 북승탑

동리산문의 또 다른 승탑은 전남 구례의 연곡사에 있다. 연곡사 동승탑은 도선(道詵, 827~898)의 묘탑으로 추정되며, 동리산문의 2조에 해당된다. 연곡사 북승탑은 현각(玄恪, ?~?)의 것으로 동리산문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4조 동리산문으로 추정할 뿐이다. 인도에 도착하기 전 배에서 죽었다고 전해진다.⁶⁾ 연곡사의 동승탑과 북승탑은 도선과 현각의 묘탑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다만 두 승탑의 양식이 매우 유사하고 장식과 기법이 뛰어나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참고;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新文館, 京城, 1918, 상권 1~210쪽 및 하권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 李能和, 위의 책, 상권 1~210쪽 및 하권

5) 문화재청, 『文化財大觀(寶物編·石造 I, 改訂版)』, 2004, 328~330쪽

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 李能和, 위의 책, 상권 1~210쪽 및 하권



그림 5. 대안사 적인선사조륜 청정탑
(출처: 문화재청, 『文化財大觀(寶物編·石造Ⅰ, 改訂版)』, 2004, 329쪽)



그림 6. 대안사 광자대사 탑
(출처: 좌동, 332쪽)



그림 7. 연곡사 동승탑
(출처: 문화재청, 『文化財大觀(國寶編·建造物)』, 2001, 269쪽)



그림 8. 연곡사 북승탑
(촬영: 김왕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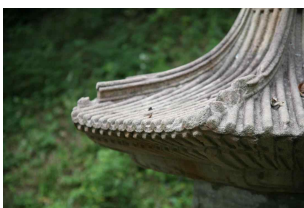


그림 9. 연곡사 북 승탑 방연과 부연 (촬영: 김왕직)



그림 10. 연곡사 북 승탑 방연과 부연 (촬영: 김왕직)

2-3. 가지산문의 승탑

방연이 있는 가장 오래된 승탑의 사례는 연대가 확실한 진 흥법사 염거화상탑이다.⁷⁾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염거화상(廉居和尚, ?~844)의 출생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입적 시기는 정확히 844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염거화상에 대한 기록은 장흥 보림

7) 金元龍, 『唐朝의 舍利塔』, 고고미술(현 미술사학연구), 4권, 4호, 1963, 377~378쪽; 염거화상탑은 구마라습의 묘탑과 같다고 전해왔다.

사의 보조선사창성탑비에서 볼 수 있는데, 가지산문 개산조인 도의국사(道義國師, ?~?)의 제자인 것으로 되어 있다.⁸⁾ 즉 염거화상은 가지산문의 2조(祖)에 해당하고, 도의국사는 가지산문의 개산조에 해당한다. 도의국사의 묘탑은 정확히 전하고 있지 않으나 진전사지 승탑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가지산문의 진전사지 승탑과 진 흥법사 염거화상탑에서는 앞서 살펴본 실상산문과 동리산문에서 볼 수 있는 문도 승탑의 조형적 친연성을 찾아보기 힘들다.⁹⁾

표 4. 방연이 표현된 가지산문 승탑

구분	승려	활동 및 관련 사찰	해당 승탑
2조	염거	- 가지산문 개산조 도의(道義)를 스승으로 삼음 - 강원 역성사(億聖寺)에서 주석	진 흥법사 염거화상탑

가지산문의 3조(祖)는 보림사 보조선사창성탑의 보조선사(普照禪師) 체징(體澄, 804~880)이다.¹⁰⁾ 그러나 보림사 보조선사창성탑은 방연이 아닌 원형의 서까래가 표현되었다. 보림사 보조선사창성탑과 매우 친연성이 보이는 승탑은 울주 석남사 승탑이다. 보림사 보조선사창성탑에 비해 세장해 보이지만, 전체적인 비례나 체계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석남사 승탑은 사굴산문의 2조(祖) 낭공 행적(郎空 行寂)의 승탑으로 추정되고 있다.¹¹⁾

8) 문화재청, 『文化財大觀(國寶編·建造物)』, 2001, 287쪽; 김신근·김봉규, 『佛脈: 한국의 선사들』, 우리출판사, 2004, 392~398쪽; 朴春圭, 『羅末 麗初의 浮屠에 관한 研究: 八角圓堂型 石造浮屠의 樣式變遷을 中心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5쪽; 도의국사는 당의 구산선문 계보 승려 중 서당(西堂) 지장(智藏)의 제자이다. 37년간 당에서 유학했던 도의국사는 821년(헌덕왕 13)에 귀국하여 선종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못하고, 진전사(陳田寺)에서 40년간 수행하다 염거에게 남종선을 전파하고 입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남사를 장건했다.

9) 흥법사 염거화상탑과 보림사 보조선사창성탑은 서까래의 모각은 각각 방형과 원형이나 전각형 옥개부를 비롯한 탑신의 양식에서 일부 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산조인 도의국사의 진전사지 승탑은 옥개부가 석등형으로 처마에 방연이 표현되지 않고 단순화되어 있다. (옥개부의 전각형, 석등형, 혼합형의 분류 방법은 다음의 연구에서 확인할 가능하다: 嚴基杓, 『新羅末 高麗初 石造浮屠에 반영된 木造建築 要素 연구』, 文化史學, 31호, 2009, 196~217쪽)

10) 문화재청, 앞의 책, 2001, 289쪽; 염거화상은 흥법사가 아닌 역성사에서 주석하였으므로 '흥법사지' 명칭에 대해서는 고증이 필요하다.

11) 울주 석남사 승탑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다. 37년간 당에 머물다 온 도의국사의 묘탑일 가능성과, 행적(行寂) 낭공대사(832~916)의 묘탑일 가능성이다. 현재까지 연구는 낭공대사의 묘탑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낭공대사는 석남사에서 입적했으나, 낭공대사의 행적 탑비는 태자사(太子寺)에 전해지고, 석남사에는 탑비가 없다. 보통 승탑과 탑비는 함께 건립된다. 또한 낭공대사는 같은 구산선문에 속하나 가지산문과는 관련이 없고, 사굴산문에 속한다. 낭공대사의 스승인 범일국사(梵日國師)는 사굴산문의 개산조로 강릉 굴산사지 승탑이 범일국사의 사리를 모신 탑으로 전해지나, 옥개부와 기단부등 전체적 기법



그림 11. 전 흥법사지 염거화상 승탑 (촬영: 조현정)
 그림 12. 전 흥법사지 염거화상 승탑 (촬영: 조현정)

2-4. 회양산문의 승탑

승탑 중 방언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회양산문의 승탑이 있다. 경북 문경의 봉암사 지증대사탑으로 회양산문 개산조 도헌(道憲, 824~882)의 묘탑이다. 도헌은 구산선문 중국 양(梁)부터 진(陳)까지의 법랑(法朗, 507~581)의 제자로 회양산문을 개창했다는 설도 있으나, 두 인물 간의 생물 연대가 맞지 않다. 부석사의 범휴대덕(梵休大德)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더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봤던 가지산문, 동리산문, 실상산문은 모두 당의 서당지장의 직계 제자가 개산한 것이나, 도헌은 서당지장의 직계 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상사 개산조 홍척과 봉암사의 도선이 봉암사 지증대사탑비를 통해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홍척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을 살펴볼 때 석남사 승탑과의 조형적 친연성이 약하다. 한편 도의국사의 입적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당에서 821년에 귀국해서 진전사지에 40년간 있었으므로 보물 439호 진전사지 승탑이 도의국사의 묘탑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석남사는 도의국사의 기도도량으로 창건한 사찰로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보림사 보조선사창성탑과 그 수법에서 친연성이 보여 개장(開葬)과 이장(移葬), 본장(本葬)의 지체 등 장례법의 변화와 추증(追贈)을 염두에 두어 오히려 가지산문의 승탑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검토해보았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석남사 승탑과 전 흥법사 염거화상탑, 보조선사창성탑 모두 팔모지붕에 홀치마로 표현되어 있고, 서까래는 방언으로 모각되어 있으며, 모두 탑신부에는 사천왕상이 새겨져 있다. 승탑의 목조건축 변안과 치석기법의 정밀함을 볼 때 조성계획과 의도를 고려하여 조형적 친연성이 있는 승탑간의 관계에 대해 향후 좀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 문화재청, 『文化財大觀(寶物編·石造 I, 改訂版)』, 2004, 388~391쪽 및 436~439쪽; 엄기표,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2003, 312~316쪽; 소재구, 『新羅下代와 高麗時代 僧塔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02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탑 (촬영: 조현정)
 울주 석남사 승탑 (촬영: 조현정)
 울주 석남사 승탑 방언 (촬영: 조현정)
 강릉 굴산사지 승탑 (출처: 문화재청 홈페이지)

표 5. 방언이 표현된 회양산문 승탑

구분	승려	활동 및 관련 사찰	해당 승탑
개산조	도헌	- 회양산문의 개산조 - 안락사(安樂寺) 주지 - 봉암사 입적 - 부석사 범휴대덕의 제자이자 중국 법랑(法朗)의 제자	봉암사 지증대사탑



그림 13. 봉암사 지증대사탑 (촬영: 김왕직)



그림 14. 봉암사 정진대사원오탑 (출처: 문화재청, 『文化財大觀(寶物編·石造 I, 改訂版)』, 2004, 2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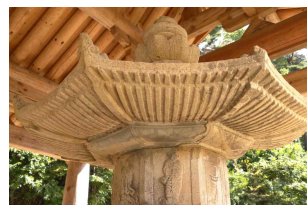


그림 15. 봉암사 지증대사탑 방언 (촬영: 김왕직)



그림 16. 정진대사원오탑 원형 서까래 (촬영: 최준현)

도헌의 제자 긍양(兢讓, 878~956)의 승탑 봉암사 정진대사원오탑도 스승의 승탑 양식을 계승했다. 두 승탑 모두 겹쳐마이나, 정진대사원오탑은 서까래가 원형이다.

3. 방언이 표현된 승탑의 특징

승탑의 조형 기법은 당시의 목조건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간략화된 부위도 있으나 옥개석의 모각이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승과 동일한 양식을 따르는 선종 승탑의 조성 과정에서 방언 역시 원형과 구분 지어 양식적 모각의 일종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구산선문 중 서당지장의 직계 제자인 동리산문

12 논문

과 실상산문의 개산조부터 반복적으로 방연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표 6>

표 6. 구산선문 중 방연이 표현된 승탑이 있는 산문

구분	동리산문	실상산문	가지산문	희양산문
개산조	승려	적인 해철	증각 홍척	지증 도현
	생몰	785~861	?~?	824~882
	유학	당	당	당
	입적	대안사	실상사	봉암사
	처마	겹처마	홀처마	겹처마
2조	승려	도선	수철	염거
	생몰	827~898	817~893	?~844
	유학	-	-	-
	입적	연곡사동	실상사	홍법사
	처마	겹처마	홀처마	홀처마
3조	승려	윤다	-	-
	생몰	864~945	-	-
	유학	-	-	-
	입적	대안사	-	-
	처마	겹처마	-	-
기타	승려	진 현각	-	-
	생몰	?~?	-	-
	유학	인도	-	-
	입적	연곡사북	-	-
	처마	겹처마	-	-

더불어 서당지장의 법맥을 잇는 가지산문의 개산조는 아니나, 2조인 전 홍법사 염거화상탑에서도 방연이 모각되어 있다. 이와 함께 서당지장의 제자는 아니나 실상산문의 개산조 홍척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희양산문의 봉암사 지증대사탑에서도 방연을 볼 수 있다. 처마를 홀처마로 선택하는 것, 아니면 겹처마로 선택하는 것도 승려가 속한 산문을 따르는 경향을 보였다. 단 동일산문의 스승과 제자의 승탑에서 사천왕상과 문비, 기단부의 조각 등은 완전히 동일한 표현 방식을 보이지 않았다. 상륜부의 조각 장식과 기단부의 양각도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었다.¹²⁾ 다만 건축적 기본 구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탑신부의 팔각 평면과 처마는 각 산문별로 동일한 규모와 요소를 하고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홀처마와 겹처마의 선택, 방연의 선택이 동리산문과 실상산문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특징만으로 모각의 계승을 한다는 것은 확대해석일 수 있다. 따라서 석조물 중에서도 왜 팔각원당

12) 이와 관련해서는 엄기표의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학연문화사, 2003)에서 자세히 다루었음.

형 승탑에서 방연을 사용한 양식이 뚜렷이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수직·수평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당시 건축 양식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현재 한반도에는 남아 있지 않으나, 8세기 목조 건축이 일본에 남아 있다. 739년에 지어진 일본 호류지(法隆寺) 몽전(夢殿)이나 764년에 준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지(榮山寺) 팔각원당(八角堂)과 같이 팔각원당형 목조건축 유형을 볼 수 있는 건물에서 방연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³⁾



그림 17. 일본 호류지 몽전



그림 18. 일본 호류지 몽전의 방연

두 번째는 공통의 스승인 서당지장의 묘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선종은 각 산문의 대표 인물인 스승의 승탑을 양식적으로 모방·계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이 국내에 도입되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팔각원당형 승탑의 원류인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의 구마라습 묘탑, 최근에 다시 지은 강소성(江西省) 정안현(靖安縣) 보봉선사(寶峰禪寺)의 마조도일 묘탑, 서당지장의 묘탑으로 전해지는 강소성 감주시(江西省 贛州市)의 대보광탑(大宝光塔)을 참고하여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⁴⁾ 대보광탑에서도 방연을 볼 수 있다.

13) 이와 관련해서는 정영호의 『新羅 石造浮屠 研究』(檀國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74)를 비롯하여 이후 대다수의 팔각원당형 승탑 관련 논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14) 다만 여기에서도 두 가지의 한계점을 볼 수 있다. 구마라습(344~413)은 탑신이 팔각원당형을 하고 있으나, 4세기부터 5세기까지 존재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개산조로 이어지기에는 공백이 있다. 따라서 송대에 복원되었으나 원형을 전한다고 하는 이들의 바로 위 스승인 서당지장의 대보광탑도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서당지장의 스승인 마조도일의 탑은 6각당에 4각탑으로 최근 복원되었으나 원형을 따랐을 것이고, 대보광탑은 탑신 평면이 방형이다. 앞서 살펴본 신라 구산선문의 승려가 스승의 승탑과 매우 유사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 결국, 신라 말 고려 초 선사들의 묘탑이 중국과 차별화된 것은 신라만의 불교 사상적 흐름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강병희, 『신라 말 고려 초 부도(浮屠)의 8각 평면에 나타나는 사상적 배경』, 韓國思想史學, 54집, 2016 참조)



그림 19. 소요원 구마라습사리탑 (逍遙園 鳩摩羅什舍利塔) (출처: 좌동, 79쪽)
 소요원(逍遙園 鳩摩羅什舍利塔) (출처: 張馭袁, 『中國塔』, 山西人民出版社, 2000, 74쪽)

세 번째는 구산선문의 승려들이 당 유학을 하면서 스승들의 묘탑을 두루 답사하며 참고는 했으나, 결국 승탑의 완성은 반도에서 되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¹⁵⁾ 즉 당시 통일신라의 건축적 요소를 반영한 철저하게 신라화된 승탑이라는 것이다. 승탑의 주인공이 입적한 뒤 승탑이 제작되므로, 제자들에 의해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유형 즉 당의 묘탑과 신라의 목조건축 즉 ‘죽은 사람을 위한 집’의 형태가 모두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당시 건축에 사용했던 방연의 형태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스승의 승탑에 따라 개산조에 표현된 방연이 이후 2조, 3조의 승탑에서도 계승되는 것이 뚜렷한 산문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상산문과 동리산문이 이에 해당한다. 더욱이 제자의 승탑도 스승의 승탑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모각으로 이어졌고, 이는 신라 말 고려 초까지 확고한 경향을 보였던 것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신라 말 고려 초 팔각원당형 승탑 중에서도 방연은 동리산문, 실상산문, 가지산문, 회양산문에서 주로 나타났다. 특히 동리산문, 실상산문, 가지산문의 대사들은 당의 서당지장의 영향을 받은 제자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회양산문 개산조인 지증대사는 서당지장의 제자가 아니지만, 실상산문 홍척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인물이었다.

선종의 영향으로 각 산문의 선사를 극진히 모셔야 하는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면서 표현이 구체화된 팔각원당형 승탑 조성으로 이어졌다. 당시 방연의 표현은 서당지장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당의 묘탑을 참고했으나, 결국 통일신라의 건축적 특징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스승인 서당지장을 비롯하여 계보를 잇는 스승들의 승탑을 답사하며 두루 참고하고, 한반도에 도입·전파되는 과정에서 통일신라의 건축적 특징이 반영되어 완성된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남아 있지 않으나, 비슷한 시기 일본의 목조건축 사례를 통해서도 동시대 건축에서 방연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각 산문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승탑을 세밀하게 모각하고 전각형 옥개부도 계통을 이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방연이 계승되었다. 더욱이 화강암은 치석이 쉽지 않아 원형 서까래와 차별되도록 의도와 계획하여 방형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실상산문과 동리산문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현재 통일신라의 목조건축은 현존하지 않으나, 이러한 건축적 요소를 통해 방연이 조선 후기에 갑자기 사용된 것이 아닌 고대건축부터 꾸준히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단, 한국건축의 특성상 서까래가 의장적 역할뿐 아니라 지붕의 하중을 받는 구조재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므로, 방형보다는 원목을 약간만 다듬어도 되는 원형의 서까래를 선호했을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목조건축 중 방연이 있는 건물은 궁궐의 정자건축과같이 장식성이 뛰어난 건물과 문·행각 등 부속건물에서 볼 수 있는데, 승탑의 장식성을 고려할 때 당시 장식적인 건물에서 방연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재현될 사적지의 건축물, 현대 한옥에서의 한국건축 요소에도 무난히 방연을 포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三國遺事』
2. 『三國史記』
3. 『高麗史』
4. 『祖堂集』
5. 權相老, 『朝鮮佛教略史』, 新文館, 京城, 1917
6.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新文館, 京城, 1918
7. 金元龍, 『唐朝의 舍利塔』, 고고미술(현 미술사학연구), 4권, 4호, 1963

15) 엄기표, 앞의 책, 241~252쪽

14 논문

8. 申榮勳, 「澈鑿國師浮屠의 木造樣式」, 고고미술(현 미술사학연구), 4권, 1호, 1963
9. 崔柄憲,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 崔致遠의 四山碑銘을 中心으로」, 한국사연구, 7호, 1972
10. 정영호, 「新羅 石造浮屠 研究」,檀國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74
11. 정영호, 『한국의 미 15: 석등·부도·비』, 중앙일보사, 1983
12. 김향숙, 『羅末麗初의 八角圓堂形 石造浮屠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13. 김향숙, 「羅末麗初의 八角圓堂形 石造浮屠의 圖像 및 紋樣의 特徵에 관한 考察」, 博物館紀要, 5호, 1989
14. 高翊晉, 『韓國古代佛教思想史』, 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15. 朴春圭, 「羅末麗初의 浮屠에 관한 研究: 八角圓堂型 石造浮屠의 樣式變遷을 中心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16. 박경식, 『통일신라 석조미술 연구』, 학연문화사, 1994
17. 윤희상·박언곤, 「신라말·고려초기의 건축사료에 의한 건축요소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4권, 6호, 1998
18. 윤희상, 「9世紀 木造建築의 技法 研究: 石造遺構의 建築要素를 中心으로」, 건축역사연구, 7권, 1호, 1998
19. 박경식, 『한국의 석탑』, 학연문화사, 2008
20. 張馭寰, 『中國塔』, 山西人民出版社, 2000
21. 문화재청, 『文化財大觀(國寶編·建造物)』, 2001
22. 소재구, 「新羅下代 僧塔造營史 研究」, 미술자료, 67호, 2001
23. 소재구, 「新羅下代와 高麗時代 僧塔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02
24. 김버들, 「韓國八角願堂石造浮屠와 日本八角願堂型建物과의 聯關性에 관한 研究」(『大學院研究論集』, 33집), 東國大學校 大學院, 2003
25. 엄기표,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2003
26. 문화재청, 『文化財大觀(寶物編·石造 I, 改訂版)』, 2004
27. 조정식·김버들, 「韓國八角圓堂(願堂)石造浮屠의 建築의 要素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1권, 6호, 2005
28. 김신곤·김봉규, 『佛脈: 한국의 선사들』, 우리출판사, 2004
29. 陳阿屏, 「馬祖道一禪學思想之研究」, 南華大學 宗教學研究所 碩士論文, 2007
30. 嚴基杓, 「新羅末 高麗初 石造浮屠에 반영된 木造建築 要素 연구」, 文化史學, 31호, 2009
31. 국립문화재연구소, 『석장: 중요무형문화재 제120호』, 민속원, 2009
32. 고유섭, 『朝鮮塔婆의 研究』, 열화당, 2010
33. 문경시,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 실측수리조사보고서』, 2010
34. 정동락, 『新羅下代 禪僧의 現實認識과 對應』,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35. 천득엽, 『인도 불탑의 의미와 형식』, 심미안, 2013
36. 강병희, 「신라 말 고려 초 부도(浮屠)의 8각 평면에 나타나는 사상적 배경」, 韓國思想史學, 54집, 2016
3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38.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접수(2016. 10. 13)

수정(1차: 2017. 2. 27)

게재확정(2017. 3. 6)